

일상속 인공지능 직접 체험해 보세요

광주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바우처지원사업 이용자 상시 모집 광주지역 29개 AI 전문기업 참여...의료·학습·문화 등 체험 서비스

광주시가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쉽게 체험하고, 지역 기업들이 실사용 환경에서 서비스를 시험·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AI 실증 확산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오는 10월 31일까지 '2025 시민·지역기업 중심 AI 바우처 지원사업' 이용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실증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의 체험형 서비스 경험과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증사업 참여 시민에게는 해당 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90%를 AI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전용 온라인 플랫폼(www.aicavoucher.kr)을 통해 광주 거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올해 바우처 사업에는 광주지역에 기반을 둔 총 29개 AI 전문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7개 분야에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각 분야별

로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기술이 집약돼 있다.

의료·보건·복지 분야는 ▲이노디테크의 AI 기반 치아 교정 솔루션 ▲웰니스고의 커피리스 혈압계 ▲라라랩스의 정신건강 분석 플랫폼 ▲정선메드의 시니어 건강관리 키오스크 등 11개 기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비즈니스 분야는 ▲고스트페이스의 생체인증 출퇴근 관리 시스템 ▲아토모스의 디지털 마케팅 통합 솔루션 ▲디엠티랩스의 AI 통번역 회의 플랫폼 등 5개 기업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교육·학습 분야는 ▲다바다의 AI 자기주도 학습 플랫폼 ▲뉴그린코리아의 스마트보드 등 3개 기업이, 안전·방범·방재 분야는 ▲브레인리츠의 지능형 CCTV ▲인트플로우의 사고 감지 AI ▲은성트래시스의 도시 안전 솔루션 등 3개 기업이 고도의 AI체험 서비스를 선보인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에선 ▲스페이스이아이의 생성형 캐릭터 챗봇 ▲에이디오트의 출입 모니터링 AI 등 2개의 서비스를, 교통·이동 분야에선 ▲노바링크의 AI 주차장 플랫폼 ▲로엔코리아

의 어린이 보행 안전 디바이스 등 2개의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기타 분야로 ▲가온플랫폼의 산업 설비 고장 예측 진단 시스템 ▲원테크월드와이드의 스마트 정류장 냉방제어 기술 등 시민 편의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3개 기업의 기술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이번 AI 바우처 사업을 통해 광주시민이 실생활에서 AI 기술의 유용성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 기업들은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술을 고도화해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별로 실제 사용자 데이터와 반응을 수집·분석하는 구조로 설계돼 단순 체험을 넘어 AI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실증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올해 바우처 사업은 단순한 기술 홍보가 아닌, 시민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이중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광주가 명실상부한 AI 실증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 자영업자 ‘안전망’·‘성장’ 투트랙 지원 정책 필요”

한은 DJ센터서 ‘지역경제 심포지엄’ 이창용 총재 개회사 ‘선별 지원’ 주장

광주 등 지역 자영업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선별하고, ‘안전망’, ‘성장’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한은)은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대응방향'이 주요 다뤄졌으며, 관련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최근 자영업은 2023년 기준 상위 20%가 하위 20% 매출의 230배가 넘는 정도로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선별해 충분한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사례, 유능한 후발주자 육성 등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세션은 김기훈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동향과 전망'을, 정희완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이 '온라인 플랫폼 성장과 지역 자영업'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정 과장은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에서 온라인 판매 도입 또는 대형업체와 영세업체 간 매출, 고용 등의 격차가 모두 벌어졌다"며 "지역경제조사팀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사결과 온라인플랫폼 확대가 지역 자영업자들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온라인플랫폼 도입 등을 위한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소비침체 장기화에 더해 온라인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무너진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목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들을 펼쳐왔다. 그 결과 자영업 폐업률이 소폭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매출 개선 등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효과는 창업 초기, 소규모, 청년층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지역경제조사팀은 분석했다.

정 과장은 이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영업자 지원 대상에 대한 사전·사후심사를 강화해 과도한 창업 등을 방지하는 동시에 잠재력 발휘를 돕는 성장정책을 중심으로 충분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션2에서는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포괄적 전략:메가센드박스'를, 서성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거점대학 육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관련 토론은 박원근 한은 광주전남본부장을 사회로,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 연구실 실장과 차성현 전남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업 FTA활용·관세 환급 광주상의 22일 실무 교육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오는 22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상의가 운영하는 FTA통상진흥센터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며, 22일 오전 10시 서구광주상공회의소 2층2강의실에서 지역 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관세법인 패스원의 김현철 관세사가 맡아 관세환급 제도의 개요·환급 방법, 원산지 결정 기준과 판정 사례, 원산지 관리실무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 관리 전담자 인정 접수 8점이 부여되는 과정으로, 교육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신청은 21일까지 팩스(062-350-5869) 또는 이메일(gj-fta@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기업 현장에 도움을 주고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GICON '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25' 참가

광주 콘텐츠 기업들 공동관 홍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25'에 참가해 지역 콘텐츠 기업을 알린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캐릭터라이선싱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라이선싱 전문 전시회로, GICON은 광주지역 대표 콘텐츠 기업들과 공동관을 꾸려 참가한다.

이번 공동관은 "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콘텐츠 기업의 우수 IP를

국내·외 시장에 소개하고, 사업화 및 유통 확장을 목표로 한다.

공동관에는 스튜디오지바바(주), 울트라그린, ㈜스튜디오버튼, ㈜핑고엔터테인먼트, ㈜상단스튜디오, 아이스크림스튜디오(주) 등 9개 지역 콘텐츠사가 참가한다.

기업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버추얼 콘텐츠 등 IP를 기반으로 바이어 매칭, 공동 부스 전시, 라이선싱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귀뚜라미 마이크로 CHP(열병합 발전 시스템). <귀뚜라미 제공>

귀뚜라미 CHP, 북미 안전 규격 'UL 인증'

'1 에너지·4 기술' 미국 시장 진출 에너지 효율·친환경 등 모두 갖춰

귀뚜라미의 CHP(열병합 발전 시스템·사진)가 북미 안전 규격 'UL 인증'을 획득하고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17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귀뚜라미 마이크로 CHP'는 현대자동차의 천연가스(CNG) 버스 엔진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총에너지 효율이 85%에 달한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며 발전 시 발생하는 배열(폐열)을 난방·온수·냉방 등에 재활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귀뚜라미의 CHP는 건물 안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핵심 설비에 공급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 노후 전력망, 전기차-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 등으로 전력 공급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상 중심의 분산형 발전 시스템이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귀뚜라미 마이크로 CHP는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해법으로 평가받았다.

귀뚜라미는 이번에 출시한 200kW급 모델 외 추가 모델에 대한 UL 인증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LPG 연료 기반 제품 인증 절차도 병행해 미국 내 상업용 건물, 다가구 주택, 공공시설 등 수요처에 맞춘 제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현대차의 검증된 CNG 엔진을 활용한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다기능 전력부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제품으로 성장시키겠다"며 "마이크로 CHP 북미 인증과 수출을 계기로 미국 분산형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소·바이오 에너지 등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시스템 개발과 대형 메가와트급 분산형 발전 시스템 확대를 위한 기술·플랫폼 기반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은 광주전남본부 통화정책 경시대회 예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5일 '2025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광주·전남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결선대회 지역대표를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대학생 중 예심을 통과한 6개 팀이 참가했으며,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한 판단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우수상에는 전북대 '함급BOK음뱀'팀, 우수상 전남대 'BOK작복작'팀, 장려상 전남대 '금상첨화'팀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오는 8월 12일로 예정된 전국결선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졌다. 또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팀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완성차 업체들 여름 휴가철 무상점검 서비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여름 휴가철 무상점검 서비스에 나선다.

1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현대차·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무상 서비스 항목은 엔진·공조장치,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브레이크·패드 마모도, 냉각수·오일류 등이다.

현대차 고객은 전국 1212개 서비스 협력사(블루렌즈), 기아 고객은 750개 서비스 협력사(오토

큐)를 방문해 쿠폰을 제시하면 된다. 쿠폰은 각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선착순 발급된다.

한국GM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78개 협력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58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을 수 있다. KG모빌리티는 2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56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다.

KAMA는 "운행 중 고장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작사별 긴급 출동반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사기 주의보 발령

안내 문자 URL은 100% 사기

금융당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 및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쿠폰 신청·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러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나 은행, 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시지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즉시 진행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24·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www.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해달라고 권고했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악성 앱을 삭제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92.29 (+5.91)
↑ 코스닥	818.27 (+6.04)
↑ 금리 (국고채 3년)	2.479 (+0.020)
↑ 환율 (US D)	1391.95 (+6.25)
<small><오후 4시 42분 기준></small>	